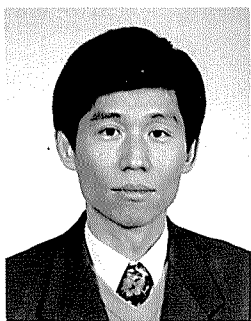


전자산업의 국제화 방향



박 성 택
산업연구원
전자정보산업연구실장

최근 국제화가 우리 경제의 운용 기초가 되고 있고 모든 경제 주체의 목표가 되고 있다.

산업중에서 국제화가 가장 진전되고 앞으로도 활발하게 진행될 부문이 전자산업이다. 그러나 전자산업이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산업이므로 동산업의 국제화가 우리 경제 전체의 미래를 튼튼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국제화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원천적인 의미는 모든 분야에서 활동이 국경을 넘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산업활동과 관련해서 본 국제화

는 제품의 수출입, 기술의 수출입, 해외직접투자, 해외금융, 외국기업과의 제휴 등 광범위한 형태로 나타난다.

이중 어떤 형태를 취하는가 하는 것은 대내외 경제환경과 기업의 능력을 감안하여 어느것이 가능하고 유리한가에 달려 있다.

이 기준에서 기본이 되는 원칙은 '자본은 그 가치실현이 유리한 곳으로 흐른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기본원칙과 기업의 전략이 합해져서 한 경제의 흥망성쇠가 결정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국내 전자산업이 세계에서 유례없는 고속의 성장을 실현해 온 것은 동산업의 국제화가 적절하게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내 전자산업은 생산설비, 기술 및 부품을 수입하면서 시작되었고, 생산된 제품이 초기부터 수출되었다는 점에서 초기부터 이미 국제화된 상태에서 성장을 지속하였다.

이를 가능케 한 것은 개도국의 공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GSP 등 유리한 무역환경과 국내시장의 보호였다.

1980년대초 우리나라를 위시한 신흥공업국들의 수출증가로 인하여

선진국들과의 무역마찰이 야기되면서 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현지 생산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국제화가 이루어졌다.

당시 해외에서의 생산활동은 최종조립에 그쳤으므로 부품조달선 등 기타 관련 생산활동은 수출의 경우와 큰 차이가 없었다.

1980년대말 이후 주로 국내 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하여 생산비 절감을 목적으로 한 해외투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 과정에는 대기업, 중소기업의 구분이 없다. 국내 전자산업의 기술과 생산품목이 임금상승을 지탱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이는 이전까지의 수출입이나 무역장벽 회피를 위한 해외투자 때와는 달리 국내 산업기반이 영향을 받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UR협상의 타결과 정보·통신산업의 발달도 기업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 UR타결에 따른 WTO체제의 출범은 재화와 자본의 이동을 자유롭게 한다.

따라서 국내시장의 보호가 어려워지고 대신 수출문호가 세계로 넓어지는 효과와 함께 생산활동도 세계에서 가장 유리한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용이해지게 된다.

정보통신의 발달은 분산된 생산 활동의 관리를 용이하게 한다.

이러한 것들이 글로벌 경영의 필요성을 가져온다.

이러한 생산기지의 국제적 이동이 전혀 새로운 현상은 아니다. 선진기업들은 이미 해외투자와 글로벌 경영을 추진해 왔었다.

그들의 경험에서 배울 점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비용 절감을 통한 경쟁력 강화만을 목표로 한 해외투자는 그 효과가 오래가지 못한다'는 점일 것이다.

1960년대말부터 미국의 가전업체들은 일본기업과의 가격경쟁에서 이기기 위하여 개도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기 시작하였으나 생산공정의 개선이나 혁신부품 등 기술개발과 채용을 소홀히 한 결과 결국 가전산업에서 퇴장하게 되었다.

일본도 전자산업에서 해외투자를 활발하게 해오고 있으나 무역마찰 방지를 위한 투자를 제외하고는 그 대상은 국내 산업의 급성장에 따른 노동력 부족과 그에 따른 임금상승으로 수익성이 낮아진 부문이었다.

해외투자와 동시에 국내에서는 반드시 고부가가치형 제품이 개발되었으며, 해외 생산활동과 국내와의 연관관계를 유지하였다.

또한 연관산업이 동시에 진출하여 해외생산의 효율성을 높였다. 엔고가 극에 달한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이러한 기본방향은 변치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하여 해외진출사업도 효율

적으로 추진되고 국내산업의 공동화도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국내 전자산업의 해외투자는 어떠한가?

금년 6월 30일 현재 전자산업에서 해외투자를 하였거나 허가를 받은 것이 360건에 달하고 이중 삼성, 금성, 대우, 현대 등 전자 4사에 의한 것이 49건에 달한다.

즉, 중소 전자부품기업의 해외투자도 급격히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이 많은 해외투자가 대부분 개별기업 차원에서 서로 독립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해외에서의 활동도 부품, 완제품 모두 단일품목의 조립생산에 머무르고 있다.

따라서 수직적 및 수평적 연관관계가 없어 해외생산의 효율화를 기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최근 주요 종합전자회사들은 TV에서 컴퓨터, 전자레인지, 반도체, CPT 등에 이르기까지 관련 품목을 일괄 생산하기 위한 해외복합생산기지의 건설을 속속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해외기지는 연구개발까지 포함하는 명실상부한 복합단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기왕 국내어건상 해외진출이 필요한 분야의 연관관계를 높인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변화로 보인다.

한가지 더 요구되는 것은 연관관계의 몇가지 우려되는 바도 있다. 먼저 글로벌 경영에 있어 누릴 수 있는 최대의 잇점은 규모의 경제에서 나온다.

각종 관련제품의 대량생산이 가능하도록 관련 품목별 생산기지를 최적지에 분산하고 이들을 네트워크

로 연결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염려되는 것은 주요 전자회사들의 해외 생산품목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우리보다 기술력이 높은 일본이 같은 전략을 구사하니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우리의 국내 기업환경이 일본과 꼭 같지 않은 점도 고려해야 한다.

해외에서 모든것이 해결된다면 이는 국경을 넘는 기업활동이 아니라 국경밖의 기업활동이다. 국내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기술을 개발하는 노력도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업활동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기업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한 자본(기업)이 유리한 외국으로 나가는 것은 막을 수 없는 진리이다.

이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정책의 개발을 넘어서 국내의 기업 모두에게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

무엇을 할 것인가는 지금 우리 기업들이 외국의 어떤 유인에 이끌리는지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한가지 확실한 것은 해외자본(기업)의 유치경쟁에 선 후진국의 구분이 없다는 것이다.

본고는 본회와 스코틀랜드 투자개발 위원회(LIS)가 공동주관한 11월 우수원고로 채택된 원고입니다.